

삼성 KPMG

Samjong INSIGHT

Issue 52 · 2017

삼성KPMG 경제연구원

M&A로 본 ICT 산업 (2009~2017년)

Thought Leadership I

ICT 산업의 M&A 동향

Thought Leadership II

2016년 이후 ICT 산업의

M&A 주요 사례



Samjong INSIGHT

Issue 52 · 2017 (통권 제 52호)

M&A로 본 ICT 산업
(2009~2017년)

Contents

Executive Summary

Thought Leadership I

ICT 산업의 M&A 동향

Thought Leadership II

2016년 이후 ICT 산업의 M&A 주요 사례

삼성KPMG 경제연구원

김광석 수석연구원 gwangsukkim@kr.kpmg.com 02-2112-7438

최연경 연구원 yeonkyungchoi@kr.kpmg.com 02-2112-7769

본 보고서는 삼성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Executive Summary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2010년대에는 세계 경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전환 되었고, 금융, 건설, 철강, 화학, 자동차, 에너지 등 모든 산업이 ICT 산업과 융합되면서 ICT 산업이 더욱 중대해졌다. 이에 따라 『전통산업 → ICT 제조 → ICT 서비스』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가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1) ICT 산업의 M&A 현황 분석과 (2) ICT 산업의 M&A 주요 사례 분석을 수행했다. 위 두 가지 연구 결과는 국내 ICT 기업들이 전략적 방향성을 정립해 나가는 데 Insight를 제공할 것이다.

Thought Leadership I

ICT 산업의 M&A 동향

- **디지털 경제와 ICT 산업의 역할:** 세계 경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 됨에 따라 『전통산업 → ICT 제조 → ICT 서비스』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
- **ICT 산업 M&A 주요 트렌드:** (1) 미국이 ICT 산업 M&A를 주도, (2) Cross-border M&A가 ICT 산업 M&A를 주도, (3) ICT 융합형 M&A가 지속적으로 증대, (4) 소프트웨어 산업이 ICT 산업 M&A 주도 등과 같은 뚜렷한 특징을 보임

Thought Leadership II

2016년 이후 ICT 산업의 M&A 주요 사례

- **메가 딜로 살펴본 ICT 산업의 M&A:** 2016~2017년 글로벌 M&A 중 규모가 큰 인수·합병 거래들에 주목. 이를 바탕으로 (1) 통신사의 콘텐츠 확보, (2)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 (3) 플랫폼 확보 등 세 가지 이슈를 도출
- **사례로 본 ICT 산업의 변화**
 - (1) **통신사의 콘텐츠 확보:** AT&T의 타임워너 인수로 3,030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기업 탄생
 - (2)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 반도체 1위 기업 인텔, 자율주행차의 핵심기술을 보유한 모빌아이 인수
 - (3) **플랫폼 확보:** 마이크로소프트는 244억 달러에 링크드인을 인수하여 소프트웨어 업계 사상 가장 큰 거래로 기록
- **기업의 대응 전략:** [1]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의 기회를 포착하라, [2] M&A 딜소싱(Deal Sourcing) 경계를 허물라, [3] 융합형 M&A로 기회를 창출하라, [4] 콘텐츠를 확보하라, [5] 자율주행기술 등 유망 기술을 포착하라, [6] 플랫폼을 확보하라

Thought Leadership I

ICT 산업의 M&A 동향

디지털 경제와 ICT 산업의 역할

“
세계 경제의 핵심축,
전통산업에서
ICT 산업으로 이동

『전통산업 → ICT 제조 → ICT 서비스』로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가속

세계의 산업구조는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1990년대까지는 자동차 제조, 에너지 제조 등의 전통 제조업이 경제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ICT 제조로 이동해 왔고, 2010년대 후반에는 ICT 서비스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세계 경제의 핵심축이 『전통산업 → ICT 제조 → ICT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는 모습이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글로벌 Top 10 기업들의 분포를 확인해 보면, 1990년대 ICT 기업은 IBM, General Electric, BT Group 등 3개에 불과했다. 인터넷과 PC에 기반한 3차 산업혁명을 맞이하면서, 2000년대에는 Itautec, Vodafone, Microsoft가 Top 10 기업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4개의 ICT 기업이 Top 10 기업에 들어섰고, 2016년과 2017년에는 Apple, Alphabet, Amazon.com, Facebook, Tencent 등의 ICT 기업들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주요 기반 기술의 선도기업들이 글로벌 Top 10 기업으로 올라서고, 반대로 전통산업은 물러나게 되었다. 특히, 2016년과 2017년의 현황을 보면, ICT 산업 중에서도 ICT 제조에서 ICT 서비스로의 변화가 눈에 띄게 나타난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된 2010년대에는 세계 경제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로 전환되었고, 금융, 건설, 철강, 화학, 자동차, 에너지 등의 모든 산업이 ICT 산업과 융합되면서 ICT 산업이 더욱 중대해졌다. 이에 따라 강한 ICT 기업을 보유한 국가가 경제 강국이 되는 공식이 성립하게 되었다.

《 글로벌 Top 10 기업(시가총액 기준) 》

	1990년	2000년	2016년	2017년
1	IBM	Itautec	Apple	Apple
2	Exxon Mobil	General Electric	Alphabet	Alphabet
3	General Electric	Exxon Mobil	Microsoft	Microsoft
4	Altria Group	Pfizer	Berkshire Hathaway	Amazon.com
5	Toyota	Cisco	Exxon Mobil	Facebook
6	Bristol-Myers Squibb	Citi	Amazon.com	Berkshire Hathaway
7	Merck & Co.	Walmart	Facebook	Exxon Mobil
8	British Petroleum	Vodafone	Johnson & Johnson	Johnson & Johnson
9	Walmart	Microsoft	JPMorgan Chase	Tencent
10	BT Group	AIG	General Electric	Mercantil

Source: Bloomberg

Note: 시가총액은 매년 12월 31일 기준, 2017년은 5월 31일 기준

경제의 중심축, ICT 산업

ICT 산업은 세계 경제의 중대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0년대 3차 산업혁명으로 PC와 인터넷 보급이 확대되어 오면서 ICT 산업은 경제의 핵심동력이 되기 시작했다. 특히, 농·축산업에서부터 자동차, 건설, 금융 등의 산업에 이르기까지 ICT 기술이 융합되어 오면서 생산성이 향상되고, 산업이 고부가가치화 되어 가고 있다. 더욱이 인공지능(AI), D&A(Data & Analytics), 가상·증강현실(VR·AR), 사물인터넷(IoT) 등의 기반 기술들을 중심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입된 디지털 경제 하에서는 ICT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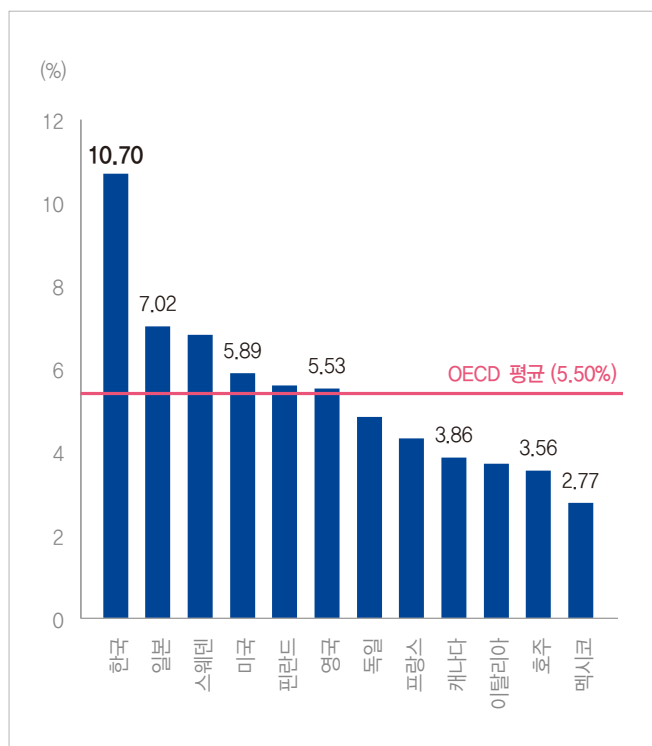


세계적으로 ICT 산업은 경제의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더욱 두드러짐

세계적으로 ICT 산업은 총부가가치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총부가가치에서 ICT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이 5.5%에 이른다. 기술 선진국들의 경우 ICT 산업은 국가 경제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특히, 한국은 총부가가치에서 ICT 산업의 비중이 10.7%로 OECD 국가들 중 ICT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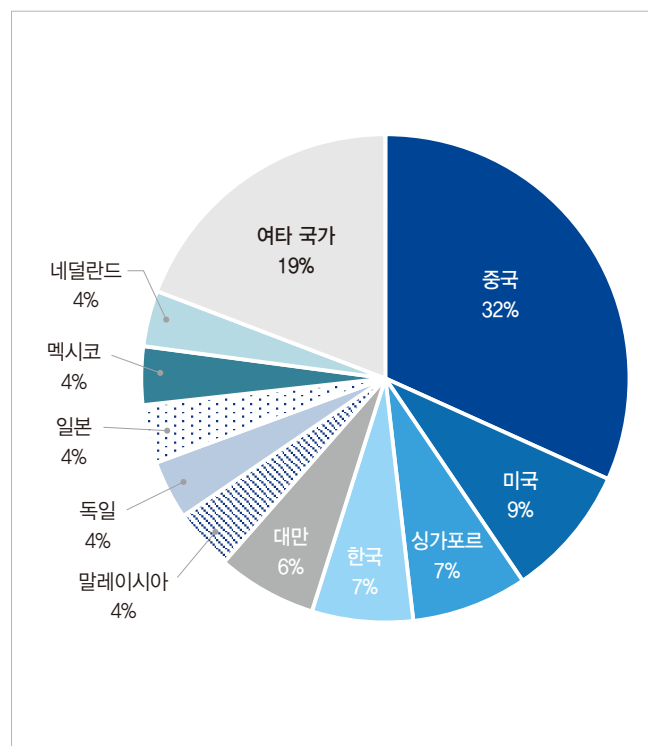
ICT 제품은 수출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한국의 ICT 제품 수출액은 전세계의 4위 수준으로 전세계 ICT 제품 수출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다. 즉, ICT 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한국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 총부가가치에서 ICT 산업의 비중 》



Source: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 ICT 제품의 세계 10대 수출국 현황 》



Source: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15

Note: 싱가포르와 대만은 중국 및 ASEAN을 대상으로 한 ICT 제품의 우회수출의 영향이 큰 특징을 보여 해석에 유의할 필요

한국경제 내 ICT 산업의 역할

한국의 산업구조는 ICT화 되어 왔다. 1970년 ICT 제조업 GDP는 제조업 전체 GDP의 4.3%에 불과했으나, 그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16년 현재 26.0%에 이른다.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업 GDP가 서비스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 3.2%에서 6.4%로 상승했다. 금융, 교육, 유통, 건설링 등 서비스업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에도, ICT 산업은 더 빠른 속도로 팽창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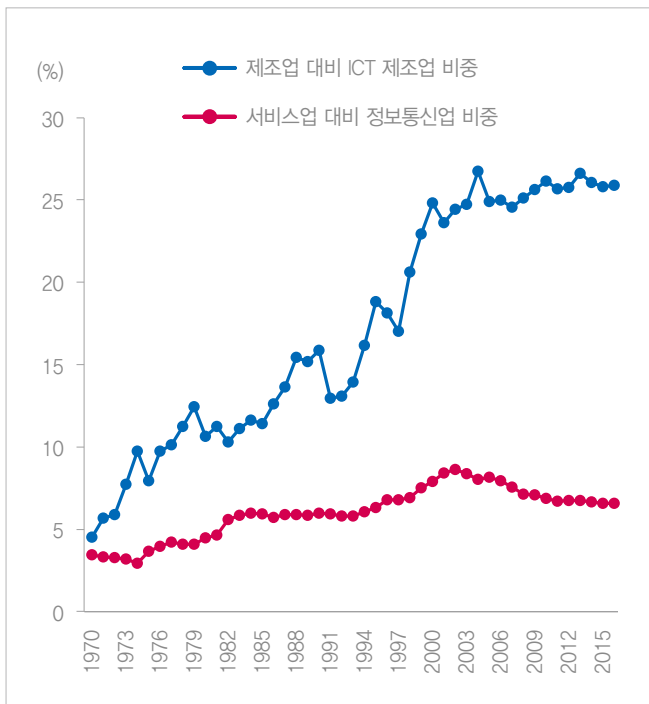


한국경제에서, ICT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의 26.0%에 이르고, ICT 제품 수출은 전체 상품 수출의 25.6%에 달해

수출 중심형 성장전략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해 오던 한국은 ICT 제품 수출이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ICT 제품 수출액은 1988년 74.14억 달러에 불과하였고, 전체 상품 수출에서 12.2%에 그쳤다. ICT 제품 수출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에는 1,267.8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전체 상품 수출에서 25.6%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수출에서 ¼ 이상을 ICT 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에는 PC, 컴퓨터 부품 등이 수출의 주를 이루었고, 2000년대에는 반도체, 휴대전화 등이 한국 수출을 견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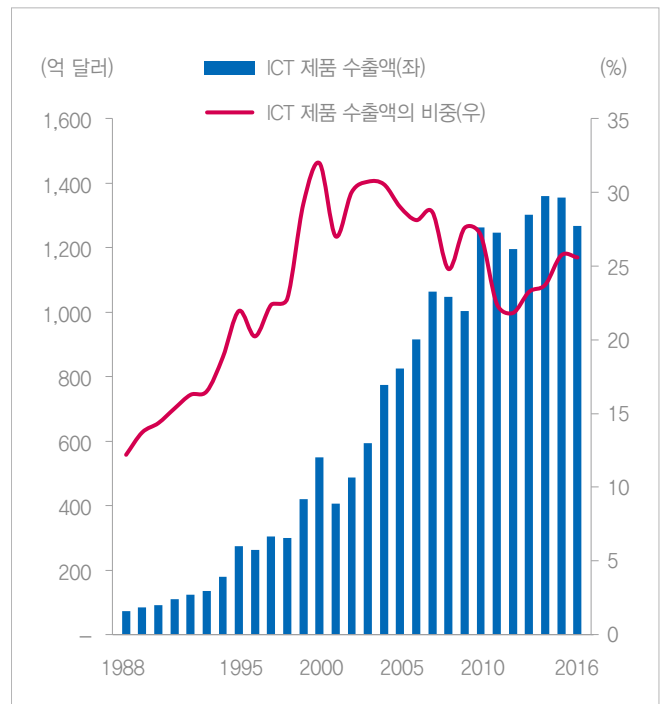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을 주제로 산·학·연·관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한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2017년에는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신설하고, 핵심 사업 및 기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정책을 입안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과 함께, 기업들은 플랫폼을 적극 구축하고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ICT 산업과의 기술제휴 및 M&A를 확대하고 있다.

《 한국의 ICT 산업의 경제적 역할 》



Source: 한국은행

《 한국의 ICT 산업 수출 추이 》



Source: 한국무역협회

ICT 산업은 M&A에서도 중심

전세계 M&A 시장에서 ICT 산업의 M&A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전세계 ICT 산업 M&A 거래건수는 2016년 5,920건으로, 유통 산업(1,499건), 자동차 산업(598건), 화학 산업(824건)과 비교했을 때 월등히 많은 M&A가 이루어졌다. 전세계 M&A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ICT 산업 M&A 거래 비중은 20~21%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M&A 시장을 이해하는 데 ICT 산업의 M&A 동향 분석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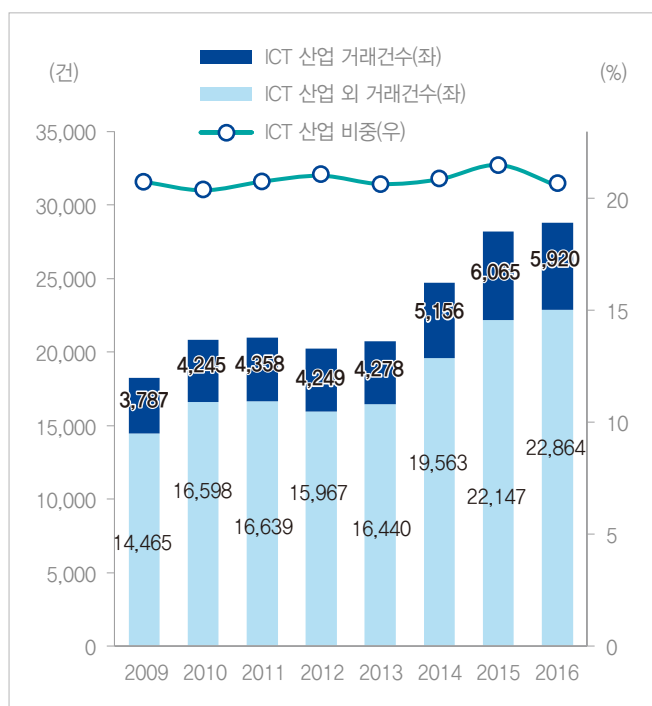


전세계 M&A 시장에서
ICT 산업 M&A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

거래건수 기준뿐만 아니라, 거래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도 ICT 산업 M&A 거래규모는 크게 확대되었다. 2009년 ICT 산업의 M&A 거래규모는 2009년 2,203억 달러 수준에서 2016년 8,379억 달러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전세계 M&A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25.9%를 기록하고 다소 하락했지만, 2009년 14.8%에서 2016년 19.7%로 크게 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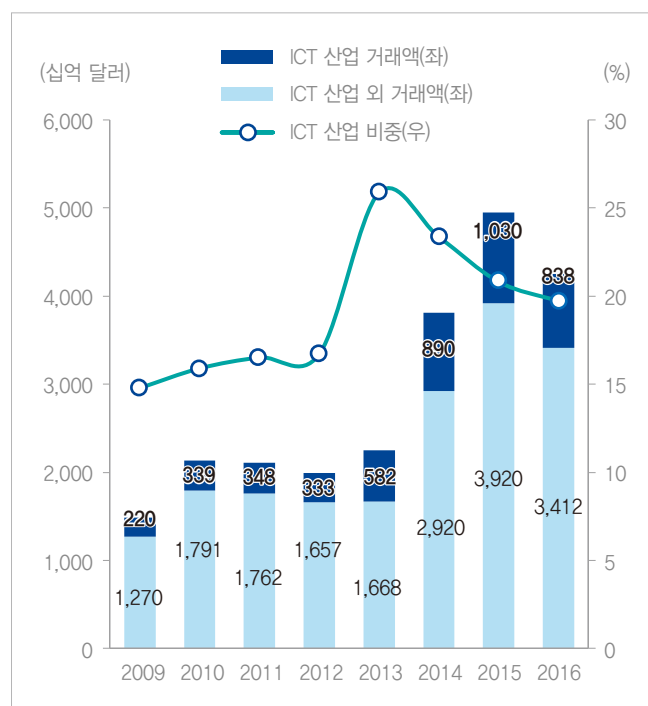
이는 다양한 산업과 ICT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전통 산업들과 ICT 산업과의 M&A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프트웨어 및 ICT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ICT 제조의 관련 스타트업 M&A가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반도체, 인터넷, 소프트웨어, ICT 제조 등 ICT 산업 내 세부산업(sector) 간 M&A가 확대된 것도 그 배경에 있다. M&A 동향 분석은 향후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투자집중 분야 등에 대한 모색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기업 경영상 중요한 Insight를 제공하며, ICT 산업 M&A는 전세계 M&A 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 ICT 산업 M&A 거래 추이(거래건수 기준)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 ICT 산업 M&A 거래 추이(거래액 기준)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거래액이 공시되지 않은 거래는 포함하지 않음

연구 방법

ICT 산업의 M&A 동향분석은 크게 세 단계에 걸쳐 수행되었다. 첫째, 자료 수집 단계에서는 2009~2017년 동안의 ICT 산업 M&A 거래를 Bloomberg를 통해 수집했다. 2017년 M&A는 5월 까지의 거래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이어지는 장기적인 트렌드를 확인하는 데만 활용했다.

ICT 산업 M&A 범주는 인수 또는 피인수 기업의 세부산업(sector)이 ICT 제조, 인터넷,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에 해당할 경우로 한정했다. 산업(industry)과 세부산업(sector)을 개념적으로 구분하였고, 세부산업(sector)은 산업(industry)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정의했다.

둘째, 분석 영역은 크게 지역별, 세부산업(sector)별로 ICT 산업 M&A 동향을 확인했다. 지역별 동향은 국내외 M&A 동향, 주요국 M&A 동향 및 인수국과 피인수국 M&A 동향을 분석했다. 산업별 동향은 ICT 산업 내 세부산업(sector) 간 M&A 동향을 분석했다. 아울러, 인수 산업-피인수 산업 M&A 동향 분석도 수행했다.

셋째, 분석된 M&A 동향을 바탕으로 Insight를 도출했다. 또한, 이어지는 ICT 산업 M&A Case 분석의 기반으로 활용했다.

《 ICT 산업 M&A 동향분석 Flow Chart 》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

ICT 산업 M&A 주요 트렌드



ICT 산업 M&A의 중심에는
미국이 있는 한편, 중국,
인도 등에서 ICT 산업 M&A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

[지역별] 미국이 ICT 산업 M&A를 주도

전세계 ICT 산업 M&A에서 미국의 M&A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2009~2017년 5월까지 전 세계 ICT 산업 M&A에서 미국의 M&A는 약 44.9%를 차지했다(인수국 기준). 해당 기간 동안 미국의 ICT 산업 M&A는 1만 8,025건으로, 연평균 6.2%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피인수국 기준으로 국가별 ICT 산업 M&A 현황을 보아도 유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2009~2017년 동안 ICT 산업 M&A 건수가 가장 빠르게 증가한 인수국가는 중국과 호주, 인도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해당 기간 동안 17.5%의 연평균증가율로 ICT 산업 M&A를 진행해 왔고, 같은 기간 호주는 11.7%, 인도는 10.0%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ICT 산업 M&A의 피인수국으로는 인도, 프랑스, 영국이 가장 빠른 속도로 M&A 건수가 증가했다. 위 3개국의 2009~2017년 동안 ICT 산업 M&A 피인수건수의 연평균증가율은 각각 13.0%, 11.2%, 11.1%를 기록했다.

인도의 경우 매우 높은 M&A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 한편, 상대적으로 Cross-border M&A보다 자국 내 M&A를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인도의 ICT 산업 M&A는 2010~2013년 동안 자국 내 M&A 비중이 30~40% 수준이었으나, 2013~2016년 동안에는 50%대를 상회했다.

《 2009~2017년 M&A의 주요국 현황(인수국 기준) 》

(건, %)			
순위	국가	M&A 건수	연평균 증감률
1	미국	18,025	6.2
2	영국	2,888	8.1
3	일본	2,748	0.4
4	중국	2,173	17.5
5	캐나다	1,875	5.5
6	한국	1,168	1.7
7	프랑스	1,139	9.4
8	호주	1,100	11.7
9	독일	1,034	4.2
10	인도	852	10.0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 2009~2017년 M&A의 주요국 현황(피인수국 기준) 》

(건, %)			
순위	국가	M&A 건수	연평균 증감률
1	미국	17,149	6.3
2	영국	3,097	11.1
3	중국	2,258	9.8
4	일본	2,255	-1.0
5	독일	1,208	7.8
6	캐나다	1,759	4.8
7	한국	1,163	1.7
8	호주	1,120	7.7
9	프랑스	967	11.2
10	인도	870	13.0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지역별] ICT 산업에서 Cross-border M&A가 확대

전세계 ICT 산업 M&A에서 Cross-border M&A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ICT 산업 M&A에서 Cross-border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27.0%에서 2016년 33.8%로 상승해 왔다. 2017년 5월에도 34.6%를 기록하며 그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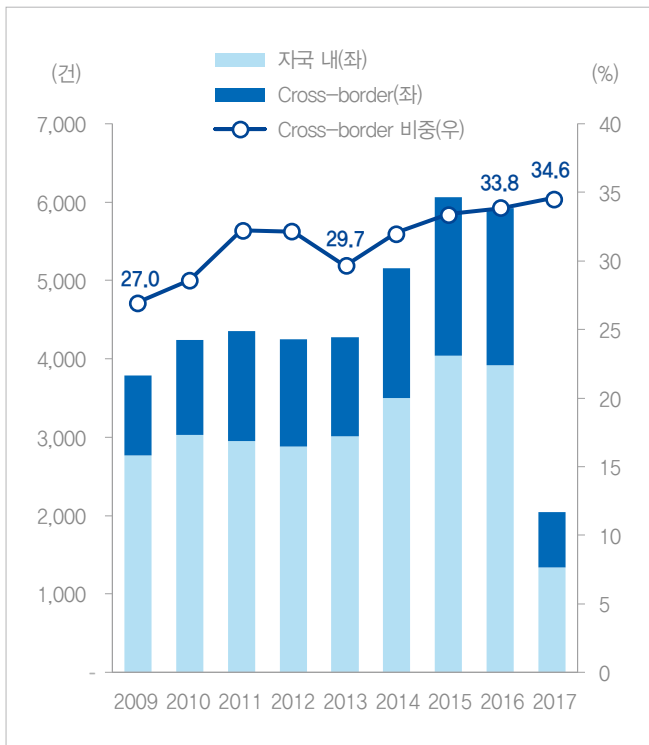
Cross-border M&A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가 뚜렷

ICT 산업의 Cross-border M&A를 주도한 주요 인수국가와 피인수국가는 모두 미국과 영국이었다. 일본과 홍콩은 주로 ICT 산업의 Cross-border M&A를 주도한 인수국가의 성격을 지녔고, 중국, 네덜란드, 인도는 상대적으로 피인수국가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다.

일본과 홍콩은 인수국가 중 각각 4위와 9위를 기록한 반면, 피인수국가로서는 상위 순위에 부재하다. 중국, 네덜란드, 인도도 피인수국가로서의 순위가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Cross-border M&A의 인수국가로서 17위, 피인수국가로서는 24위를 기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수국으로서의 역할에 많이 기여했다. 또한 한국은 ICT 산업 전체 M&A에서는 6위 수준을 기록한 반면, Cross-border M&A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에 머물러 자국 내 M&A 비중이 높은 국가의 성격을 띄고 있다. 세계적으로 ICT 산업 M&A가 Cross-border M&A를 중심으로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트렌드에 다소 못 미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났다.

《 자국 내 및 Cross-border M&A 추이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 2009~2017년 Cross-border M&A의 주요국 현황 》

인수국가				피인수국가			
순위	국가	M&A 건수	연평균 증감률	순위	국가	M&A 건수	연평균 증감률
1	미국	3,872	9.3	1	미국	2,996	10.4
2	영국	1,310	9.6	2	영국	1,519	16.0
3	캐나다	920	6.3	3	캐나다	822	4.8
4	일본	665	9.0	4	독일	706	10.8
5	프랑스	598	9.6	5	중국	468	-6.5
6	독일	532	4.3	6	프랑스	426	13.8
7	스웨덴	397	18.7	7	호주	412	8.6
8	호주	392	19.9	8	네덜란드	380	12.5
9	홍콩	391	11.8	9	인도	326	14.7
10	중국	383	25.7	10	스웨덴	266	7.4
∴	∴	∴	∴	∴	∴	∴	∴
17	한국	143	12.4	24	한국	138	12.4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2017년은 1~5월 기준
2) 일본은 피인수국가 중 17위(172건) 기록

[지역별] 한국의 ICT 산업 M&A도 Cross-border M&A가 상당폭 확대

세계 ICT 산업과 유사하게, 한국도 Cross-border M&A가 상당폭 증가해 왔다. ICT 산업 M&A에서 Cross-border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13.1%에 불과하였으나, 2016년 24.8%로 상승했다. 2017년 1~5월에도 30.6%를 기록하며 그 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ICT 산업의 Cross-border M&A 비중이 2016년, 2017년 1~5월 기준 각각 33.8%, 34.6%에 달하는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Cross-border M&A 의존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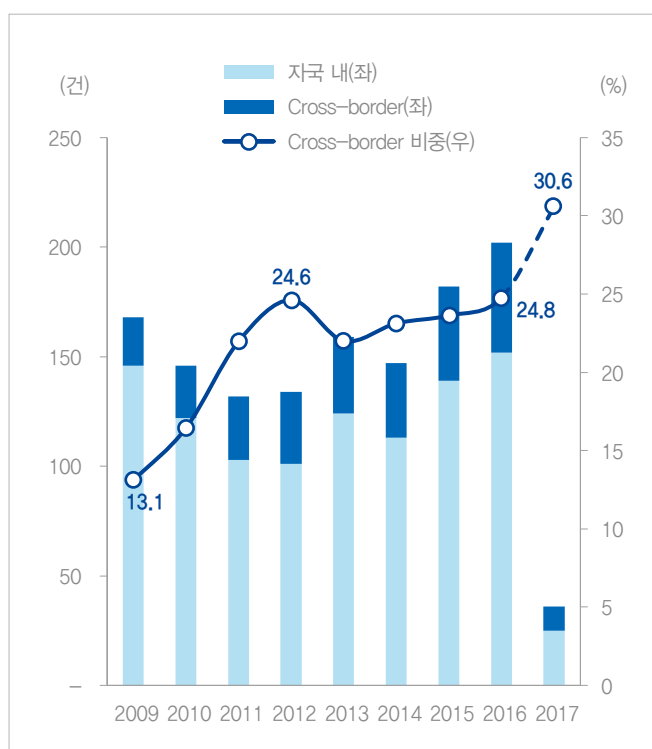


한국의 ICT 산업의 경우 Cross-border M&A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평가됨

2009년부터 2017년 5월까지 한국이 인수한 주요 피인수 기업이 속한 국가들로는 미국, 일본, 캐나다, 중국, 영국 및 베트남이 있었다. 한국 기업을 인수한 주요 인수 기업들이 속한 나라에는 미국, 일본, 중국,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이 있었다. 2009년부터 2017년 5월까지 미국과 일본은 각각 46건, 31건의 한국 기업 M&A를 진행해 왔다.

한국의 ICT 산업 M&A는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글로벌 동향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국을 대상으로 한 M&A가 높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주요 아시아 신흥국들에는 중국(6건), 베트남(6건), 싱가포르(5건), 인도네시아(3건) 등이 있었다. 특이한 점 중 하나는 한국 기업이 중국 기업을 인수한 M&A보다 중국 기업이 한국 기업을 인수한 형태가 두 배 이상 많았다는 점이다.

《 한국의 자국 내 및 Cross-border M&A 추이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 2009~2017년 한국의 Cross-border M&A 현황 》

피인수국 (한국이 인수국인 경우)			인수국 (한국이 피인수국인 경우)		
순위	국가	M&A 건수	순위	국가	M&A 건수
1	미국	52	1	미국	46
2	일본	22	2	일본	31
3	캐나다	8	3	중국	13
4	중국	6	4	버진아일랜드	8
4	영국	6	5	홍콩	6
4	베트남	6	5	싱가포르	6
7	홍콩	5	7	영국	3
7	싱가포르	5	7	스웨덴	3
9	독일	4	7	캐나다	3
10	인도네시아	3	10	베트남	2
10	케이맨제도	3	10	호주	2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지역별] 미국은 영국·캐나다와, 중국은 홍콩과 주로 M&A

미국의 주요 기업들은 주로 캐나다와 영국 기업들과 Cross-border M&A를 이루었다. 예를 들어, 루퍼트 머독의 거대 미디어 그룹 Twenty-First Century Fox사가 영국 위성방송 Sky를 180억 파운드(약 26조 6,000억 원)에 인수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거래가 있다.

한편, 미국 반도체 제조업체 Semtech가 캐나다 반도체 제조업체 Gennum을 4억 5,000만 달러에 인수한 사례도 있다. 해당 딜을 통해 Semtech은 고성능 아날로그 반도체 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을 확대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미국의 기업들은 반도체 업체 Intel이 이스라엘의 자동차용 카메라 시스템 개발 기업 Mobileye를 인수하는 등 다양한 국가와의 M&A를 실시하고 있다.



주로 다른 국가들과 M&A를 체결하면서 해당국의 시장에 진출하고, 시장점유율을 확대하는 경향

캐나다의 주요 기업들은 미국의 기업들과 주로 M&A가 이루어졌다. 대표적으로, Dell Technologies가 캐나다의 엔터프라이즈 정보관리 업체 Open Text에 16억 2,000만 달러 규모로 엔터프라이즈 콘텐츠 사업부를 매각한 사례가 있다.

이 밖에도 영국의 주요 기업들의 경우, 자국 내 M&A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M&A가 주로 미국과 이루어졌다. 한편, 홍콩의 경우 중국 기업들을 주로 인수했고, 중국 기업들은 홍콩 기업들을 주로 M&A했다는 특징이 두드러진다.

〈 2009~2017년 상위 10대 인수국가별 ICT 산업 M&A 현황 〉

		(건)									
인수 \ 피인수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스웨덴	호주	홍콩	중국	
미국	14,153 (5.5%)	851 (14.0%)	617 (4.1%)	72	181 (11.6%)	259 (14.4%)	93	198	37	120	
영국	556 (10.4%)	1,578 (7.0%)	37	3	49	92	28	52	7	20	
캐나다	583 (3.6%)	89	937 (4.8%)	4	16	20	14	30	4	9	
일본	214 (13.6%)	44	21	2,083 (-1.6%)	21	30	9	23	9	33	
프랑스	152 (12.3%)	78	28	4	541 (9.1%)	58	12	11	-	12	
독일	148 (8.6%)	54	12	2	35	502 (4.1%)	8	7	3	1	
스웨덴	87	42	11	-	14	34	222 (9.0%)	4	2	2	
호주	123 (17.5%)	55	12	-	4	7	-	708 (7.2%)	20	9	
홍콩	56	16	4	7	1	7	1	10	326 (7.8%)	164 (7.3%)	
중국	116 (43.5%)	21	13	15	8	15	2	3	68	1,790 (15.5%)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Bloomberg 자료 재구성

Note: 1. 상위 10대 인수 국가들을 기준으로 M&A 크로스테이블 분석 수행

2. 2017년은 1~5월 기준

3. ()안은 2009~201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감률로, 유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합계 M&A 건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시함

[산업별] ICT 융합형 M&A가 지속적으로 증대

ICT 산업 내 세부산업(sector) 간 M&A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세부산업 간 M&A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54.2%에 머물렀으나, 그 비중이 점차 증대되어, 2013년 62.8%, 2016년 70.2%, 2017년 5월까지의 71.6%를 기록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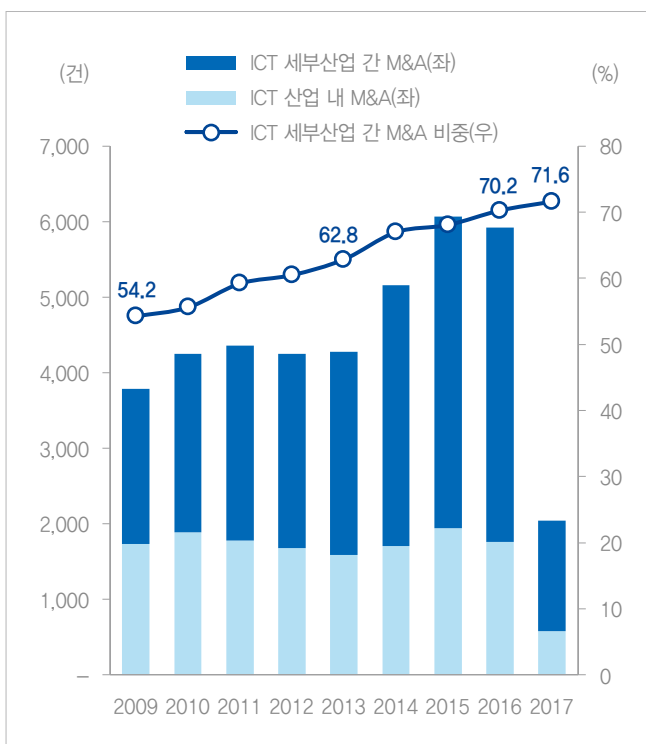
ICT 제조 기업과 인터넷 기업의 M&A, 소프트웨어 기업과 반도체 기업의 M&A 등 ICT 산업 내에 다양한 이종 산업 간에 융합형 M&A가 ICT 산업 M&A를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범용화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하며, D&A(Data & Analytics) 기능을 확보하는 등 전략적 방향성을 띤 M&A가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ICT 산업 M&A는 세부 이종산업 간의 융합형 M&A를 중심으로 크게 확대되는 추세를 보임

ICT 산업 내 모든 세부산업(sector)들에서 산업 간 M&A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피인수산업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인터넷, ICT 제조 등이 산업 간 M&A 비중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경우 2016년 들어 ICT 산업 내 이종산업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M&A를 확대해온 대표적인 분야로, 산업 간 M&A 비중이 90.6%에 달했다. 통신 기업 AT&T의 미디어 그룹 타임워너 인수는 이러한 트렌드를 반영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또한 ICT 산업 내 주요 기업들은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들뿐만 아니라 인터넷 및 ICT 제조 분야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M&A를 체결해온 것으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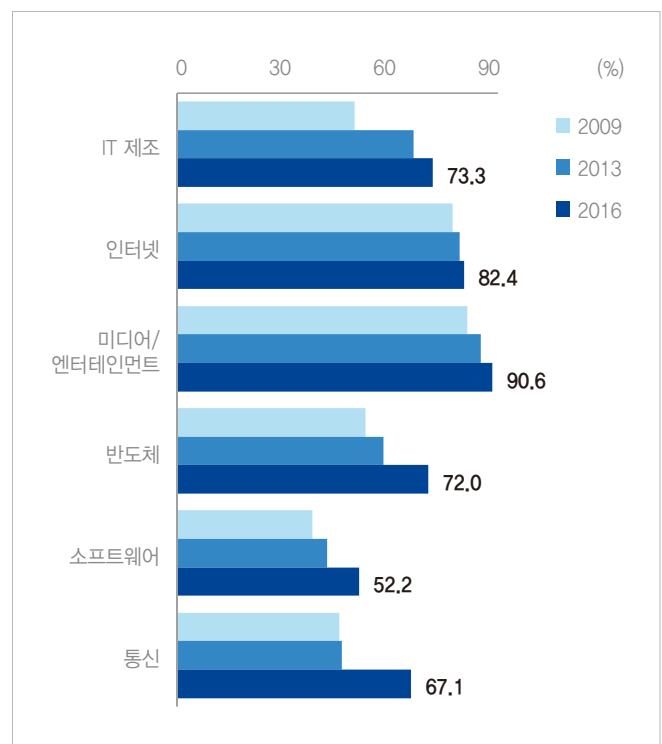
《 ICT 산업 내 및 세부산업(sector) 간 M&A 추이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1) 산업 간 M&A 비중은 전체 M&A 대비 비중
2) 2017년은 1~5월 기준

《 피인수산업별 ICT 세부산업 간 M&A 비중 추이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Note: 산업 간 M&A 비중은 전체 M&A 대비 비중

[산업별] 소프트웨어 산업이 ICT 산업 M&A 주도

소프트웨어 산업의 M&A가 ICT 산업 M&A를 주도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인수산업별 M&A 추이를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M&A는 2010~2011년 동안 인터넷 산업 M&A를 밀돌았으나, 해당 시기를 제외하고는 ICT 산업의 M&A를 지속적으로 주도해 왔다. 특히, 2013~2016년 동안 소프트웨어 산업의 M&A가 인수산업을 기준으로 767건에서 1,166건으로 급증했다. 피인수산업을 기준으로 살펴 보아도 유사한 흐름이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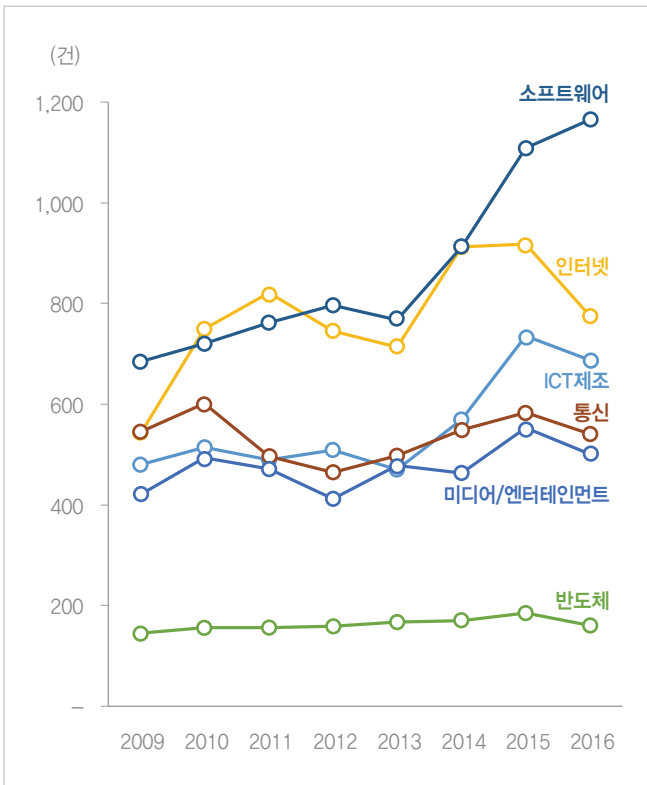


소프트웨어 산업이 ICT 산업 M&A를 주도했으며, 인터넷 산업이 ICT 산업 내 타 세부산업과의 M&A를 주도

인터넷 산업은 ICT 산업 M&A를 주도해온 두 번째 세부산업에 해당한다. 인수산업을 기준으로, 인터넷 산업의 M&A는 2009년 540건에서 2015년 918건으로 증대되었고, 2016년에는 774건을 기록했다. 인터넷 산업은 전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CT 산업 내 타 세부산업과의 M&A를 주도한 영역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이 산업 내 M&A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에 비하면, ICT 융합형 M&A를 주도한 주요 부문은 인터넷 산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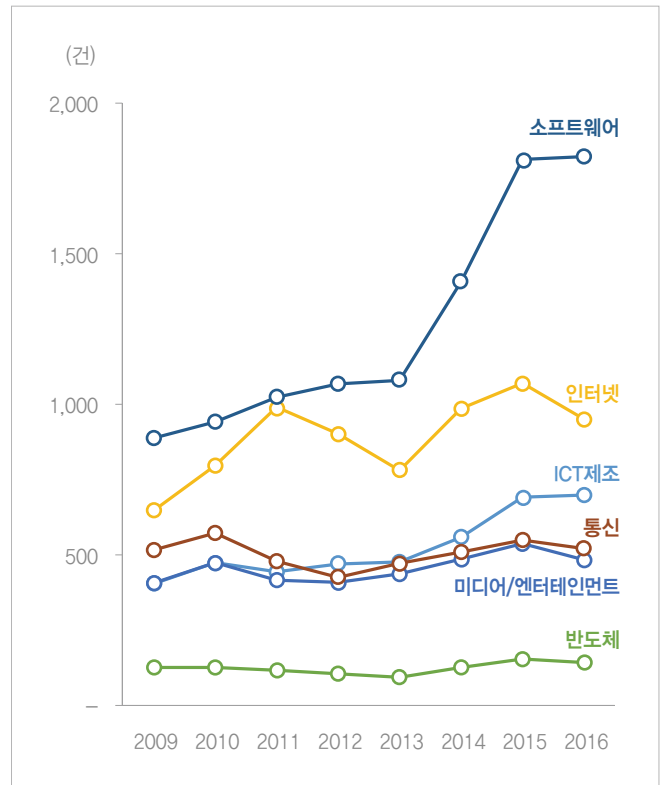
ICT 제조의 경우, ICT 산업 M&A를 주도한 3번째 세부산업에 해당되며, 2013년까지는 전반적으로 통신 산업보다 M&A 건수가 적었으나 2014년 이후 ICT 제조업의 M&A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통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산업은 각각 ICT 산업의 4, 5, 6위 그룹에 해당한다.

《 인수산업별 M&A 추이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 피인수산업별 M&A 추이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산업별] ICT 제조와 인터넷이 소프트웨어와 만나다

ICT 제조와 인터넷 산업 내 기업들은 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주요 기업들을 인수·합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9년부터 2017년 5월까지 ICT제조와 인터넷 산업 내 기업이 소프트웨어 산업 내 기업을 M&A한 건수는 각각 1,153건, 1,020건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HP가 Autonomy Corp을 인수했거나, Honeywell International이 JDA Software Group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은 주로 인터넷 기업과의 M&A가 주를 이루었다. 총 531건의 M&A가 그러한 사례에 해당하고, 대표적으로는 Cogeco Communications가 Atlantic Broadband를 인수한 사례가 있다.

반도체 산업의 주요 기업들의 경우, 동종 간 M&A를 제외하면, 상당수의 M&A가 주로 ICT 제조 분야의 기업을 인수하는 방향으로 M&A가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ASML가 Cymer와의 M&A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우, 인터넷 및 ICT 제조업과의 M&A가 주로 이루어졌다. Microsoft가 LinkedIn을, Oracle이 MICROS Systems을 인수한 사례가 있다.

마지막으로, 통신 산업의 경우 소프트웨어 및 ICT 제조 산업과의 M&A가 주를 이루었다. NTT가 Dimension Data를, Verizon Communications가 Fleetmatics를 인수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ICT 제조와 인터넷 산업은 주로 소프트웨어 산업을 인수하고, 소프트웨어 산업도 ICT 제조와 인터넷을 주로 인수하는 경향이 뚜렷

《 2009~2017년 ICT 산업별 M&A 현황 》

인수 \ 피인수	(건)					
	ICT 제조	인터넷	미디어/엔터테인먼트	반도체	소프트웨어	통신
ICT 제조	1,519 (-0.9%)	326 (9.7%)	55	163 (4.8%)	1,153 (11.5%)	298 (3.2%)
인터넷	239 (12.1%)	3,005 (-1.6%)	276 (14.3%)	7	1,020 (23.3%)	197 (2.5%)
미디어/엔터테인먼트	96	531 (5.0%)	2,039 (-1.1%)	5	354 (12.6%)	90
반도체	239 (6.9%)	35	9	528 (-5.1%)	89	64
소프트웨어	589 (15.6%)	776 (11.0%)	104 (15.3%)	16	4,020 (4.5%)	179 (5.7%)
통신	375 (2.8%)	365 (4.0%)	198 (7.7%)	27	411 (5.8%)	2,118 (5.4%)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Bloomberg 자료 재구성

Note: 1. 2017년은 1~5월 기준

2. ()안은 2009~2016년 동안의 연평균 증감률로, 유의도를 유지하기 위해 합계 M&A 건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제시함



Thought Leadership II

2016년 이후 ICT 산업의 M&A 주요 사례

메가 딜로 살펴본 ICT
산업의 M&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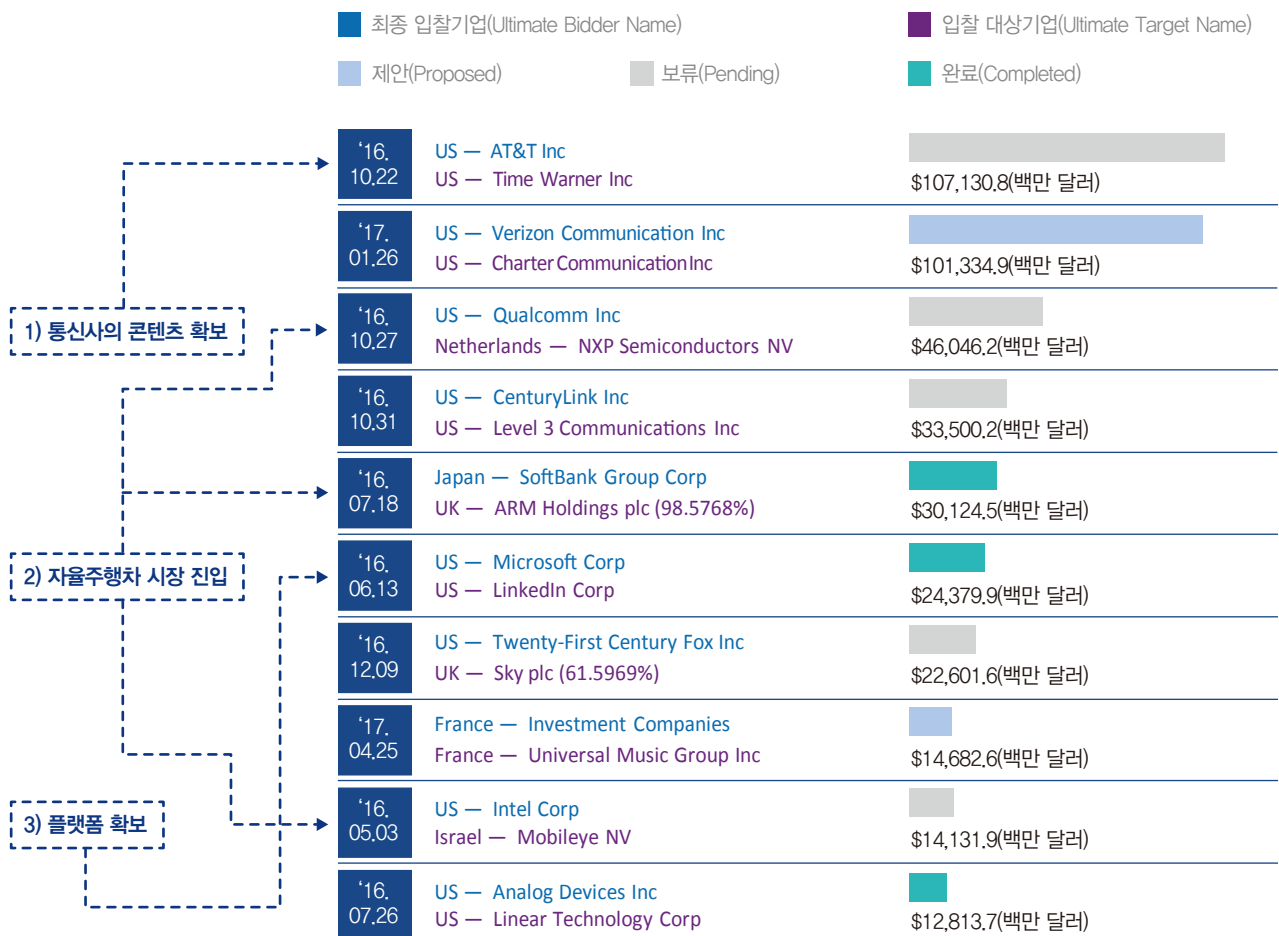
최근 글로벌 M&A 메가
딜을 통해 세 가지 이슈 도출

ICT 산업 M&A의 3대 트렌드

최근 ICT 산업의 M&A를 살펴보면 10억 달러 이상의 메가 딜(Mega Deal)이 눈에 띈다. AT&T의 타임워너 인수와 마찬가지로 퀄컴의 NXP 반도체 인수, CenturyLink의 Level 3 Communications 인수 등 글로벌 기업들의 대형 거래는 전년 동기에 비해 전체 M&A 거래 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거래 금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글로벌 M&A 중 규모가 큰 인수·합병 거래들에 주목했다. 이를 바탕으로 1) 통신사의 콘텐츠 확보, 2)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 3) 플랫폼 확보 등 세 가지 이슈들을 꼽을 수 있었다. 각 이슈에 해당하는 대표 기업들의 사례는 ICT 산업 내 다양한 세부산업(sector)에서의 주목해야 할 트렌드를 파악하고 ICT 기업들이 향후 나아가 전략적 방향성을 수립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에 세 가지 M&A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최근 ICT 산업의 상위 10대 M&A 거래 》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6.01.01~2017.05.31 기간의 M&A를 집계

사례로 본 ICT 산업의 변화



AT&T의 타임워너 인수로
3,030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기업 탄생

1) 통신사의 콘텐츠 확보

통신 · 미디어 공룡의 탄생

2016년 10월 22일 미국 2위 통신업체 AT&T가 미국 3위 미디어 기업 타임워너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AT&T는 타임워너의 주식을 주당 107.50달러, 총 854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는데, 이는 타임워너의 21일 종가가 89.48달러였던 것을 감안하면 2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은 수치이다. 타임워너의 부채까지 포함하면 AT&T가 지불하는 금액은 총 1,071억 달러 규모이다. 두 회사의 결합은 2011년 컴캐스트와 NBC유니버설의 300억 달러 규모 합병 이후 미국 미디어 업계 최대이자 2016년 글로벌 M&A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인수 · 합병 건이다. 또한 두 기업의 합병으로 3,030억 달러 규모의 초거대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는 점도 시장에서 굉장한 주목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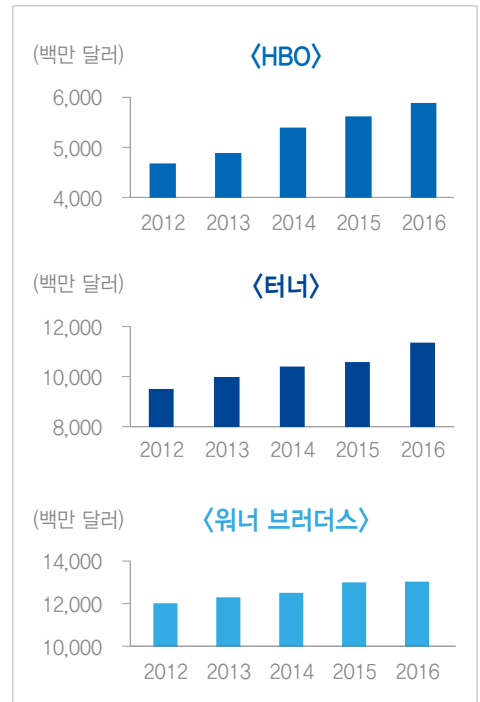
2016년 기준 매출액 280억 달러 수준인 타임워너는 컴캐스트, 디즈니를 잇는 글로벌 미디어 기업이다. 타임워너는 1989년 주간지 '타임', '포천' 등 38종의 잡지를 발행하던 타임출판사와 케이블 채널 'HBO', 영화제작사 '워너 브러더스' 등을 보유한 워너커뮤니케이션스의 합병으로 출발했다. 이후 138회에 이르는 인수 · 합병을 통해 폭넓은 콘텐츠를 보유한 글로벌 미디어 기업으로 성장했다. AT&T는 이번 인수를 통해 할리우드 최대 영화 회사인 워너 브러더스, 미국 대표 케이블 영화 채널인 HBO를 비롯해 세계적인 뉴스 전문 채널인 CNN, 만화 전문 방송인 Cartoon Network, 각종 스포츠 중계권을 보유한 터너의 막강한 콘텐츠 포트폴리오를 얻게 되었다.

《 타임워너의 콘텐츠 포트폴리오 》



Source: Time Warner Website, 삼정KPMG 경제연구원

《 타임워너의 주요 계열사 매출액 》



Source: Bloomberg

AT&T, 타임워너 인수로 콘텐츠 경쟁력 확보

통신 산업 전반에 기존의 통신 서비스만으로는 더 이상 수익을 창출하기 힘들다는 위기감이 팽배한 상황 속에서, AT&T 역시 전통 통신 사업인 비즈니스 솔루션, 소비자 통신 부문의 매출이 정체를 보이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2014년 4분기 이후 가입자 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었던 AT&T는 타임워너를 인수함으로써 타임워너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디어와 통신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혁신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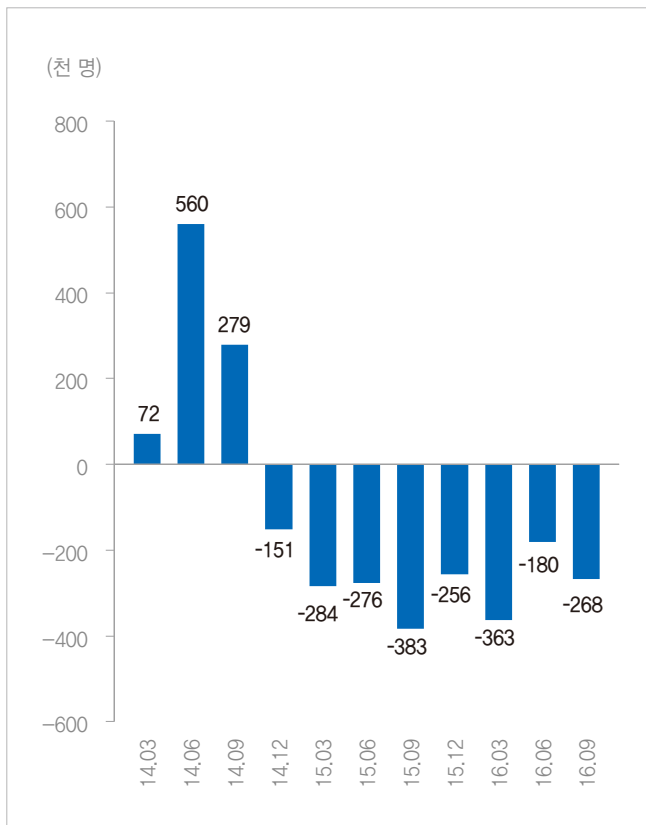


AT&T,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을 공략해 1위 통신기업이
되겠다는 전략

AT&T의 타임워너 인수 건은 ICT 산업의 가치사슬에서 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인수 발표 당시 AT&T의 CEO 랜달 스티븐슨은 “프리미엄 콘텐츠는 언제나 승리했다”며 “모든 기기에서 콘텐츠를 자유롭게 감상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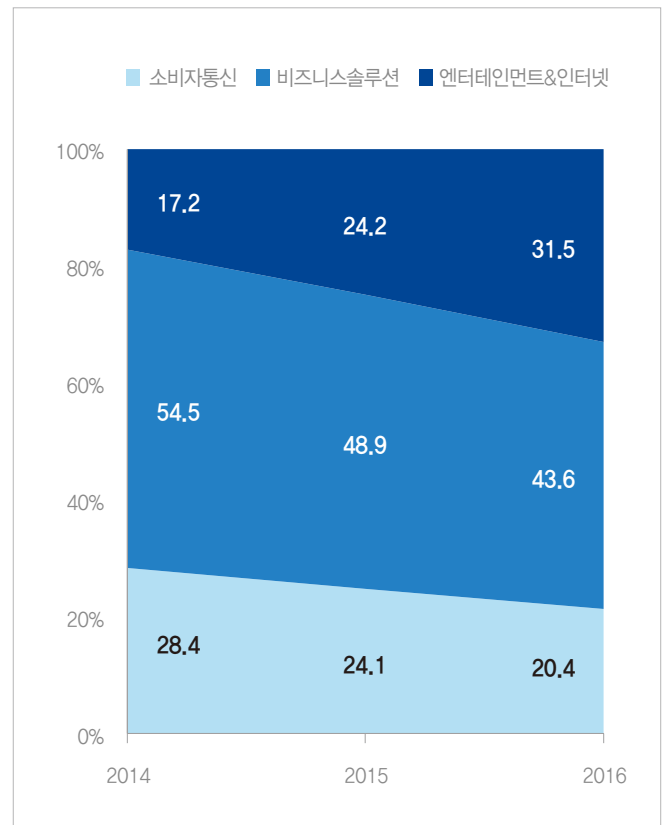
인수·합병으로 미국 AT&T 가입자들은 스마트폰·태블릿PC·TV 등에서 타임워너가 제작한 각종 콘텐츠를 독점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이처럼 AT&T는 타임워너가 보유한 콘텐츠를 바탕으로 이동 통신 요금 대신 차별화된 콘텐츠로 고객을 공략하겠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버라이즌을 제치고 미국 통신회사 1위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계획이다.

《 AT&T 유료 무선고객 전분기 대비 증감 추이 》



Source: AT&T, 삼성KPMG 경제연구원

《 AT&T의 사업 부문별 매출 비중 추이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통신 미디어 기업의 결합 가속화

통신사들이 미디어 기업과 융합하는 상황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케이블TV 1위 기업인 컴캐스트가 2011년 NBC유니버설을 인수해 매출과 가입자를 모두 성장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미디어 기업 인수의 좋은 모범사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업계에서는 콘텐츠가 유통 채널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기도 하다. AT&T의 디렉TV(2014), 타임워너(2016) 인수 외에도 다른 통신 기업들의 콘텐츠에 대한 관심은 높은 추세이다.



콘텐츠 경쟁력 확보를 위한
통신·미디어 기업의 M&A는
더욱 증가할 것

미국 1위 통신사 버라이즌은 어썸니스TV의 지분을 인수하면서 자사의 온라인 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공개했으며, 지난 2015년에는 허핑턴포스트, 테크크런치, 엔가젯 등 콘텐츠 제공업체를 보유한 인터넷 회사 아메리카온라인(AOL)을 인수했다. 이어 2016년에는 야후의 인터넷사업부를 인수하기로 합의하면서 비통신 사업부문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통신·미디어 업계에 부는 M&A의 현황을 보면 트렌드는 명확하다. 특히 통신업체들의 경우 과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칭했던 전통적 통신사업이 모바일, 동영상 위주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기존 비즈니스 모델의 빛이 바래지고 있기 때문이다.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았던 기존의 서비스로 가입자를 확보해 이익을 창출하던 시기를 지나 신규 가입자 증가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가 도래했다. 이 때 고객이탈 방지를 위한 승부수는 플랫폼의 경쟁력이며, 그 핵심은 이용자들이 해당 플랫폼에 최대한 오래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콘텐츠인 것이다. 콘텐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향후 통신·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물론 해당 산업 내 지형도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 통신·미디어 기업의 M&A 현황 》

인수 기업	대상 기업	인수 시기	내용
버라이즌	아메리카온라인	2015	종합 콘텐츠 업체 아메리카온라인을 44억 달러에 인수
	어썸니스TV	2015	지분 24.5%를 약 1억 5,900만 달러에 인수
	야후	2016	야후 인터넷 사업부를 44억 8,000만 달러에 인수
AT&T	디렉TV	2015	미국 위성방송 1위 기업 디렉TV를 485억 달러에 인수
	타임워너	2016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타임워너를 1,071억 달러에 인수
컴캐스트	NBC유니버설	2011	'11년 51%(138억 달러), '13년 잔여지분을 167억 달러에 매입
	드림웍스	2016	38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월트디즈니와 경쟁 체제 구축
텔레포니카	카날 플러스	2014	위성방송 사업자 카날 플러스를 7억 2,500억 유로에 인수

Source: 언론사 종합, 삼정KPMG 경제연구원

2) 자율주행차 시장 진입

통신 미디어 기업의 결합 가속화

2017년 3월 13일 종합 반도체 1위 기업 인텔은 자동차용 카메라 시스템 개발 기업인 이스라엘의 모빌아이를 141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인수·합병의 가격은 같은 해 3월 10일 모빌아이의 종가 47.27 달러(시가총액 105억 달러) 대비 34%의 프리미엄을 지급한 것으로 인텔은 상당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인수를 단행했다. 이는 이스라엘 기업사상 최대 규모의 인수·합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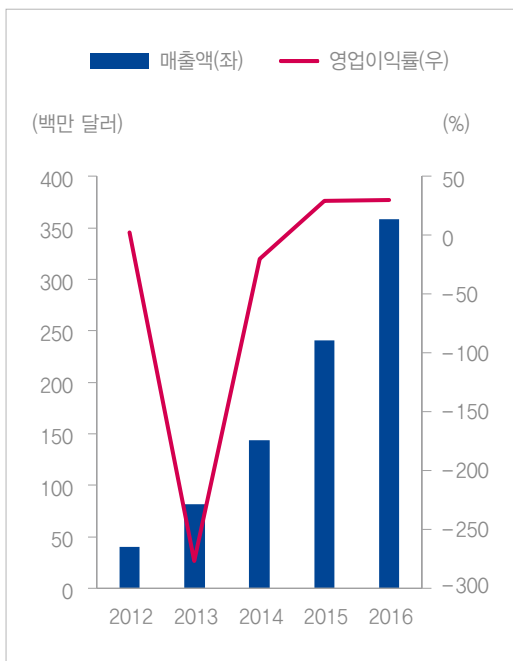


반도체 1위 기업 인텔,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을
보유한 모빌아이 인수

모빌아이는 글로벌 자동차 카메라 영상신호 처리 시스템 개발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70~80%를 차지하는 글로벌 1위 기업이다. 모빌아이는 설립 5년 만에 이스라엘 기업의 미국 증시 상장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나스닥에 상장했으며, 자율주행차의 기본이자 핵심 기술인 영상 인식 기반의 '첨단 운전자보조시스템(Advanced Driver Assistance System, 이하 ADAS)'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ADAS는 자동차 내부에 장착되며, 하나의 칩으로 보행자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BMW, GM, 쌍용자동차 등 27개 자동차 회사에 기술을 판매하고 있으며, 최근 BMW와의 협약으로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PC시장의 성장 둔화로 인한 기업 체질 변경을 이유로 2016년 전 세계 직원의 11%를 해고한 인텔은 이처럼 모빌아이의 뛰어난 기술력과 미래가치에 높은 기대를 걸고 인수를 결정했다.

《 모빌아이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



Source: Bloomberg, 삼성KPMG 경제연구원

《 ADAS의 주요 기능 및 모빌아이의 주요 협력사 》

기능	내용	협력사
보행자 충돌 경고	• 전방에 있는 보행자를 추돌하기 최대 2초 전 경고	BMW, GM
차선 이탈 경고	•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차선 이탈하는 순간 경보 발생	Audi
차간 거리 모니터링	• 두 차량 간 상대거리를 시간으로 표현해 운전자 주의 환기	Ford
제한속도 표지판 인지	• 제한속도 표지판을 인식해 과속할 경우 경고	Honda, VW
앞차추돌 경보	• 추돌 최대 2.7초 전에 경보 발생 시켜 운전자가 임박한 추돌상황 인지하고 대처	VOLVO, S

Source: Mobilye, 언론사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인텔, 모바일이 매입으로 자율주행차 분야에서의 도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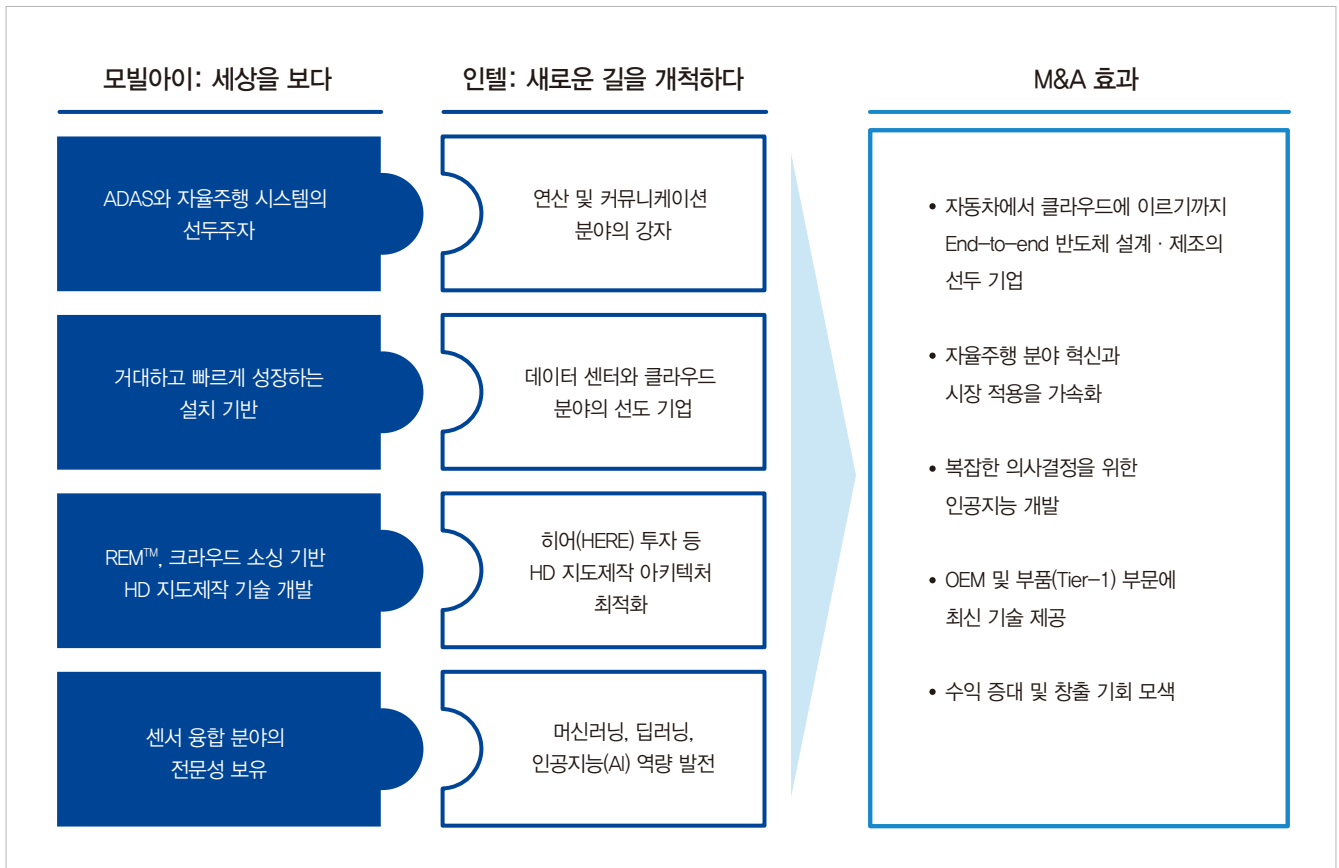
인텔이 모바일이에 큰 돈을 투자하는 이유는 개인용 컴퓨터 시장은 규모가 줄어들고 있지만 자율주행차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 자율주행차는 외부 환경을 확인하기 위한 카메라, 센서, 통신기기가 필요하고 이런 장치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처리해 운전하는 '컴퓨터 운전자'가 필수적이다. 데이터 수집, 처리, 판단에 활용되는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는 인텔은 이번 거래를 자율주행차의 눈, 그리고 실제로 차량을 움직이는 두뇌의 결합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율주행차 두뇌와 눈의 만남,
자율주행차 시장의 미래를
가속화할 것

차량의 경로를 계획하고 실시간 주행 결정을 내리는 등 자율주행을 위한 인텔의 필수 기술과 모바일이의 업계 최고 수준의 센서, 자동차 제조사 및 공급사와의 돈독한 관계는 큰 시너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인텔은 이를 바탕으로 자율주행의 미래를 가속화하고 자동차 제조사들이 낮은 비용으로 클라우드-차량 솔루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7년 1월 디지털 지도 및 위치 기반 서비스 제공업체인 히어(HERE)의 지분을 15% 인수하면서 지도 데이터까지 갖춘 인텔은 자율주행차의 눈 역할을 수행할 모바일이까지 확보함으로써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강력한 입지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모바일이-인텔 M&A의 기대효과 》



Source: Intel, 삼정KPMG 경제연구원

미래 성장동력을 위한 M&A 움직임

인텔의 인수·합병에는 ICT 업계에서 달라진 자동차의 위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반도체 산업은 ICT 기기들이 세대를 거쳐 다음 단계로 진화할 때마다 높은 수요 증가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왔다. 반도체 산업은 초기 휴대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전환할 때 황금기를 보냈으며, 최근에는 자율주행차라는 신 성장 동력에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자율주행차의 등장과 함께 변화의 물결을 놓치지 않기 위한 반도체 업계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



ICT 업계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높은 관심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전망

모빌아이 인수를 포함해 최근 1년 새 ICT 및 자동차 업체들이 자율주행차 관련 스타트업 인수에 사용한 금액은 약 5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2016년 10월 퀄컴은 자동차용 반도체 업체 NXP반도체 인수에 무려 46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는 반도체 업계 사상 최대 M&A 규모로 주목 받았다. 일본 소프트뱅크의 영국 반도체 설계 기업 ARM을 인수한 거래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대표적인 칩셋 설계 및 IP 기업인 ARM은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 칩셋의 기반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곳으로, 소프트뱅크는 ARM을 인수함으로써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반도체 기술을 품에 안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최근 삼성전자는 80억 달러를 투입한 자동차 전장부품업체 하만 인수를 완료했다.

2017년 2월에는 포드가 미국 자율주행 관련 인공지능(AI) 벤처기업 '아르고시'에 5년간 10억 달러(약 1조1,500억 원)를 투자해 인수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차량의 작동을 총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탁월하다고 알려진 '아르고시' 인수를 통해 포드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개발하고 2021년까지 자율주행차를 양산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우버의 오토모토 인수, GM의 크루즈 오토메이션, ZF의 TRW 오토모티브 인수 등은 ICT 및 자동차 업체의 자율주행차에 대한 높은 관심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흐름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ICT 및 자동차업체의 자율주행차 관련 M&A 〉

인수기업	ZF	GM	우버	퀄컴	삼성전자	포드	인텔
피인수기업	TRW 오토모티브	크루즈 오토메이션	오토모토	NXP 반도체	하만	아르고시	모빌아이
업종	자동차 부품	자율주행 기술	자율주행 트럭	반도체	오디오·전장 부품	자율주행 기술	차량 안전 솔루션
인수액(달러)	117억	10억	6억 8,000만	460억	80억	10억	141억
인수발표시기	2014년 9월	2016년 3월	2016년 8월	2016년 10월	2016년 11월	2017년 2월	2017년 3월

3) 플랫폼 확보

클라우드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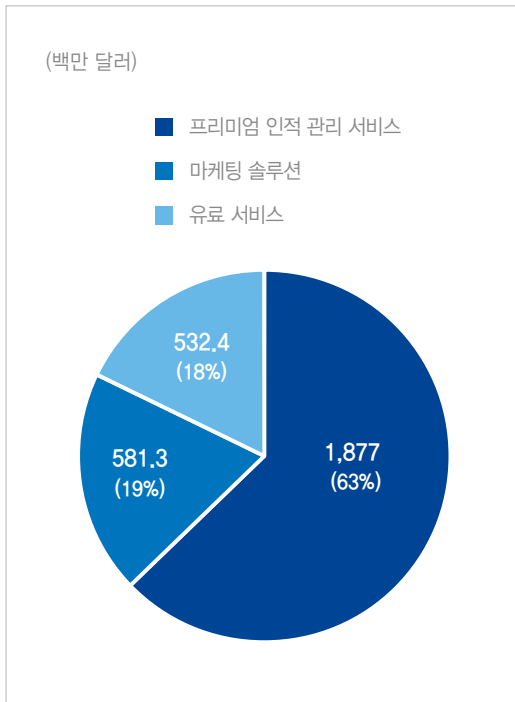


262억 달러에 링크드인 인수,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거래

소프트웨어 업계의 강자 마이크로소프트는 2016년 6월 13일 비즈니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링크드인을 24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주당 매입가격은 196달러로, 링크드인의 전날 거래 가격(131달러)에 약 50%의 프리미엄을 지불했다. 해당 거래는 마이크로소프트 역사상 가장 큰 거래이자 소프트웨어 기업의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이다. 특히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인수했던 노키아 휴대전화 사업부문을 정리(2014)하는 등 실패한 인수·합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거래를 과감히 추진해 향후 링크드인과의 시너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날 지 주목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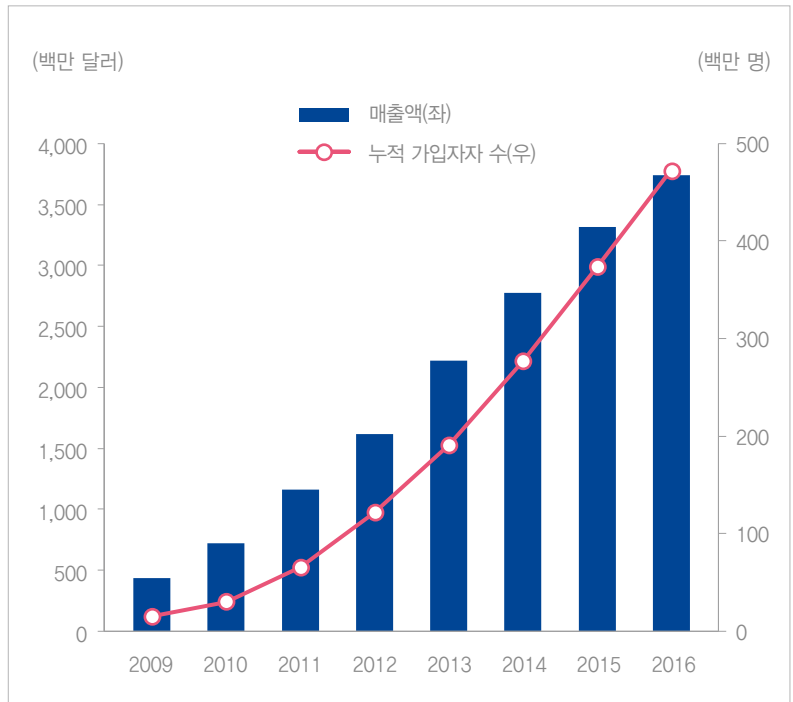
‘비즈니스계의 페이스북’으로 불리는 미국의 링크드인은 구인·구직 서비스에 SNS 기능을 더해 직무 관련 데이터를 바탕으로 구직자와 채용자를 연결한다. 링크드인의 매출 구조는 프리미엄 인적 관리 서비스(Talent Solutions), 마케팅 솔루션(Marketing Solutions), 유료 서비스(Premium Solutions) 등 크게 3가지이며, 입사 후보자 추천, 홈페이지 배너광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링크드인은 전세계에서 4억 명 이상의 이용자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린다닷컴(lynda.com)’, 프레젠테이션 공유 사이트 ‘슬라이드 쉐어(Slide Share)’ 등 새로운 프로그램도 선보이고 있다. 링크드인의 제프 와이너 CEO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술과 링크드인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엿볼 것”이라고 밝히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

《 링크드인의 매출 구조 》



Source: Bloomberg, 삼정KPMG 경제연구원

《 링크드인의 매출액 및 누적 가입자 수 》



Source: Bloomberg, Statista,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누적 가입자수의 경우 2016년은 3분기까지 집계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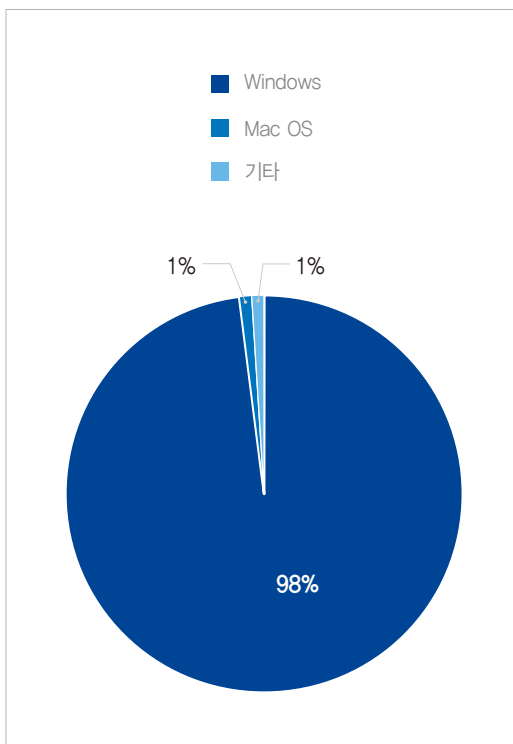
“
마이크로소프트, 비즈니스
SNS를 결합해 비즈니스용
제품군 경쟁력 강화

글로벌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개인용 컴퓨터(PC)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 이하 OS)인 윈도우(Windows)와 인터넷 브라우저 익스플로러(Explorer)를 개발하면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다. 하지만 PC 이용자들이 스마트폰과 모바일 기기로 옮겨가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어가고 있다. 다만 기업용 운영체제, 오피스 프로그램 시장에서는 여전히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문가 네트워크를 보유한 링크드인을 인수함으로써 자사가 강점을 지니고 있는 비즈니스용 제품군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가는 전략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세계 1위의 오피스 클라우드를 보유한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과 결합해 클라우드 컴퓨팅 분야가 한층 더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피스 365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 생성되는 관계망은 링크드인을 통해 기업 외부까지 확장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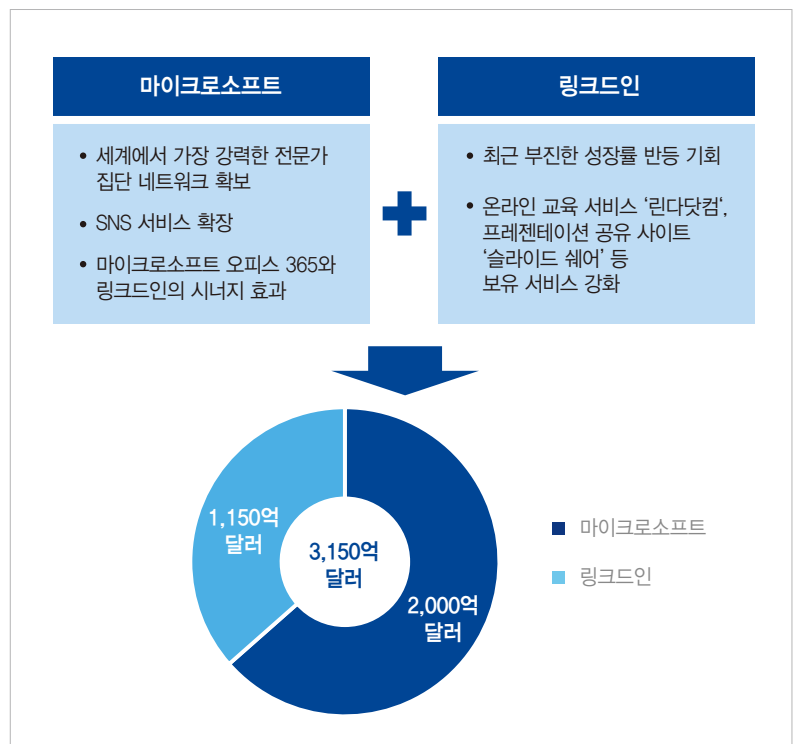
더불어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이 보유한 구인·구직, 비즈니스 파트너, 기업 정보 등의 방대한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솔루션 제품 판매는 물론 다양한 마케팅 방안에도 활용할 계획이며, 링크드인이 2015년에 인수한 온라인 교육 서비스 기업 ‘린다닷컴’을 활용해 자사 교육 프로그램도 발전 시켜나갈 것으로 보인다.

《 기업용 OS 시장점유율 》



Source: Spiceworks,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2017년 3월 기준

《 마이크로소프트-링크드인 M&A의 기대효과 》



Source: 언론사 종합, LinkedIn, Microsoft, 삼정KPMG 경제연구원
Note: 우측 파이그래프는 총 잠재적 시장(Total Addressable Market) 규모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Productivity & Business Process 부문



**ICT 시장 변화를 주도한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은
점차 확장**

ICT 기업들, 플랫폼 지배를 넘어 확장

공급자와 수요자를 이어주는 공간인 플랫폼은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과 전략을 바꾸고 있으며, ICT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간적 한계가 줄어들고 영역이 더욱 확장되고 있다. 새로운 플랫폼 기업들이 탄생하는 것과 더불어 과거부터 플랫폼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글로벌 기업들은 M&A를 통해 기존 플랫폼의 지배를 넘어서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대표적인 경쟁업체로 삼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최근 구글은 API.AI, 아피지 등을 인수하여 미래 선도 기술 관련 플랫폼을 성장시키려 하고 있으며, 페이스북은 인스타그램, 왓츠앱 등을 인수해 기존 네트워크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으며, ICT 산업의 밸류체인에서의 중요성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온·오프라인 상품·서비스를 갖춘 전통 플랫폼 기업은 웹·모바일 기반 비즈니스 플랫폼 확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혁신적 플랫폼을 도입해 ICT 시장 변화를 주도한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향력이 비ICT 분야로 확장 중이다. 이렇게 기존 비즈니스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기업 고유의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며, 생태계의 기반은 바로 플랫폼이 될 것이다. 따라서 플랫폼 자체가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됨에 따라 향후 플랫폼 확보 전쟁은 심화될 것이다.

《 주요 ICT 기업들의 플랫폼 관련 기업 M&A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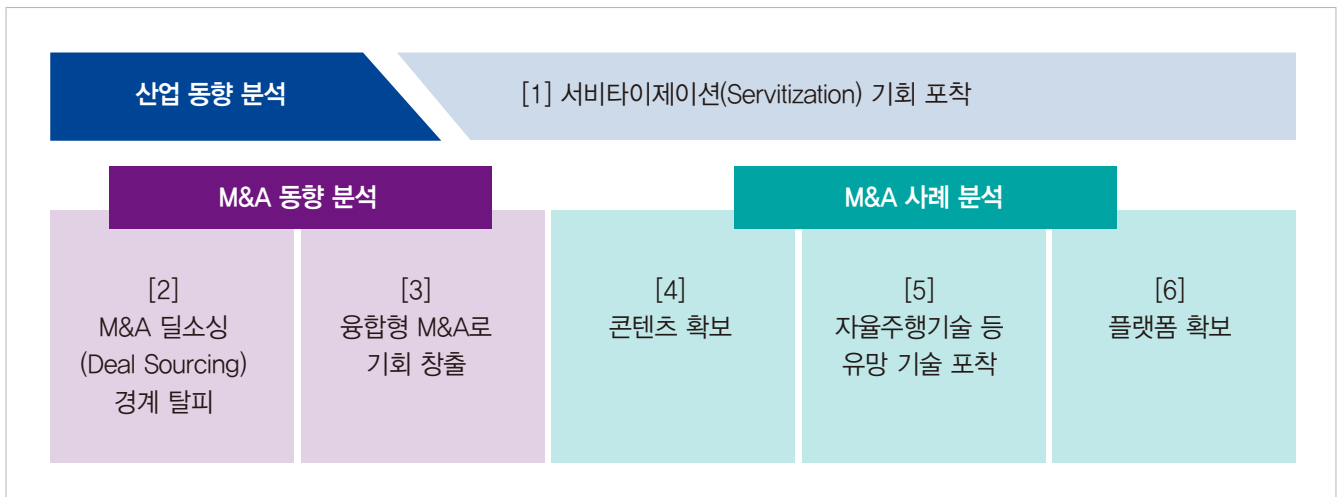
인수 기업	대상 기업	인수 발표 시기	인수 대상 기업 분야
구글	API.AI	2016	챗봇 관련 플랫폼
	아피지	2016	지능형 API 플랫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2012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왓츠앱	2014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2016	IoT 플랫폼
	비브랩스	2016	AI 관련 플랫폼 개발
애플	옴니폰	2016	영국 B2B 음원 서비스
오라클	모아트	2017	온라인 광고·마케팅 측정 및 추적플랫폼
알리바바	다마이왕	2017	중국 최대 티켓 예매 플랫폼
바이두	레이븐 테크	2017	AI 음성비서 플랫폼

Source: 언론사 종합, 삼성KPMG 경제연구원

시사점 및 기업의 대응전략

M&A 동향 분석 및 주요 사례 분석 결과, 하기와 같은 6가지 Insight가 도출되었다. ICT 기업들은 M&A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할 시점이다

《 ICT 기업의 M&A 대응전략 》



Source: 삼정KPMG 경제연구원

[1]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의 기회를 포착하라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시대를 맞아, 세계의 산업구조는 전통산업에서 ICT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 더욱이, ICT 제조에서 ICT 서비스로의 전환도 본격화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반 기술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가상·증강현실 등은 제품보다는 서비스의 형태로 구현되고, 소비자들에게 제시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전제품, 전자제품, 통신기기 등의 ICT 제조산업의 주요 생산물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포화를 이루어, 성숙기에 진입하거나 성숙기를 지나고 있기도 하다. 기업들은 M&A를 통해서 사업 영역을 관련 서비스 산업으로 다각화하거나, 자사가 제공하는 주요 제품과 인접한 영역의 서비스를 기획하는 등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의 시도를 고려할 시점이라 판단된다.

[2] M&A 딜소싱(Deal Sourcing) 경계를 허물라

ICT 산업의 M&A는 자국 내 M&A보다 Cross-border M&A를 중심으로 확대되는 트렌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경우, Cross-border M&A 비중이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Cross-border M&A 비중이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 기업들은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유망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Cross-border의 경계를 인식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외 딜소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M&A를 통해 서비스
산업으로의 다각화를
시도하라

물론, Cross-border M&A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게임, 핀테크, 플랫폼 등의 ICT 서비스 영역에서 경쟁력을 보유한 기업들이 해외에 다수 존재하며, 그러한 기업들과의 M&A가 기술력이나 해외시장 진출 측면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상당한 시너지를 줄 수 있다. 따라서 M&A를 통한 기업의 방향성 설정 과정에서, 지역적인 경계를 허물고 해외 딜소싱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M&A는 Cross-border의 경계도, 산업 간의 경계도 허물어야 한다

[3] 융합형 M&A로 기회를 창출하라

ICT 산업 M&A의 중대한 트렌드는 지역 간의 경계 뿐만 아니라, ICT 산업내 세부산업(sector) 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비타이제이션(Servitization)이라는 거대한 트렌드와도 맞물려 나타난다. 즉, ICT 제조 분야에서는 제조 영역을 매도하고, 콘텐츠 기업, 게임 기업, 소프트웨어 기업, 인터넷 기업 등과의 M&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는 시장 및 소비자의 변화, 산업 구조의 변화, 기술 고도화 등의 다양한 배경 하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기업들의 전략적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중대한 고려사항이 되어야만 한다. 즉, 모든 것이 변화하는데 기업만 그대로이면 안된다. 기업들이 기존 산업에서 새로운 유망 산업으로 진출하거나, 운영방법들을 전환하기 위해 이중 산업과의 M&A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다.

[4] 콘텐츠를 확보하라

최근 M&A 상위 10대 거래에서 통신사 관련 인수·합병이 세 건이나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신규 가입자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성장이 정체된 상황 하에서, 통신기업은 콘텐츠 확보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는 모습이다. 동일한 산업 내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콘텐츠를 보유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되고 있다. 더불어 5G 상용화가 도래함에 따라 더욱 고도화되고 복잡한 콘텐츠 서비스가 가능해 진다는 점은 콘텐츠 기업과의 M&A를 통해 다양한 사업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M&A를 통해 유망 콘텐츠와 기술을 포착하라

[5] 자율주행기술 등 유망 기술을 포착하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유망 기술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ICT 산업의 M&A도 영역을 파괴하는 신성장 동력 선점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특히, ICT 산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가장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시장은 자율주행차 시장이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산업에 걸쳐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장기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망 기술을 선점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해 준다.

M&A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거나, 운영방법을 효율화하는 등의 기회도 매우 중요하지만, 시기적으로 중요한 점은 유망 기술을 포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들은 자사의 제품 및 서비스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핵심 유망 기술들을 포착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과의 M&A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M&A를 통한 유망 기술 확보는 4차 산업혁명 시기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경쟁력은 더 이상 제품과 서비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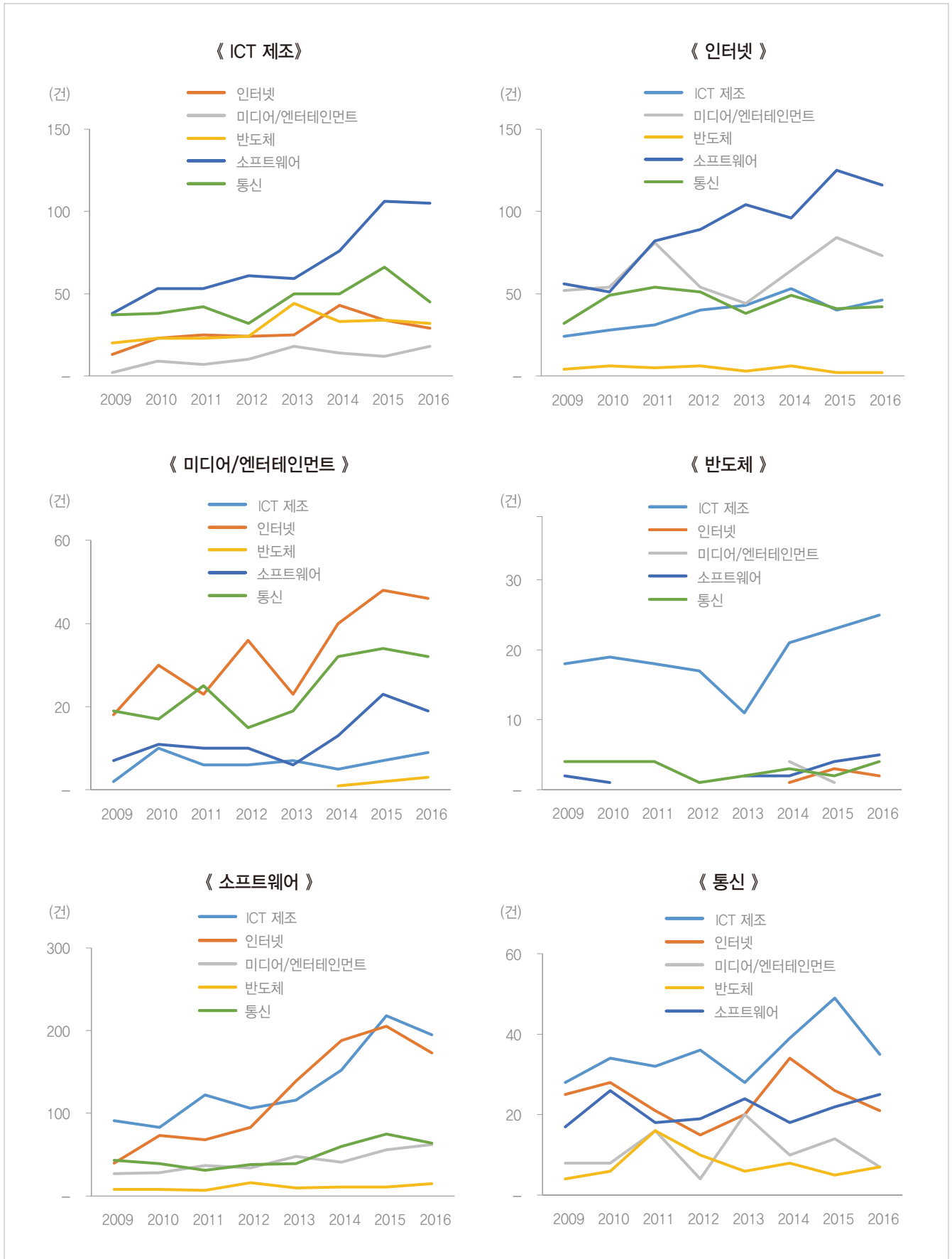
[6] 플랫폼을 확보하라

산업의 경계와 국가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게 된 근본적인 배경은 '플랫폼'에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범용화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다양한 나라에 동시에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기업의 경쟁력은 제품과 서비스에 있어 왔지만, 미래의 경쟁력은 플랫폼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플랫폼은 고객들과 직접 접촉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힘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네트워킹을 위해 플랫폼 확보가 중요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굴지의 글로벌 기업들이 플랫폼을 강화해나가는 모습도 M&A 동향이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국내 기업들도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 국내외를 막론하고 강력한 플랫폼 기업과 콘텐츠 보유 기업과의 M&A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사의 플랫폼 확보가 지연되는 반면, 경쟁사가 먼저 범용화된 플랫폼을 구축할 경우, 고객과의 중요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잃게 되고 나아가 고객을 경쟁사에게 빼앗기게 될 수 있다.



[Appendix] 주요 ICT 세부산업(sector)의 산업 간 M&A 현황



Source: 삼성KPMG 경제연구원이 Bloomberg 자료 재구성
 Note: 2017년은 1~5월 기준
 각 그래프는 각 인수산업의 피인수산업 M&A 건수 추이를 나타냄



전자정보통신반도체산업 및 M&A 전문팀

Audit

양승열

부대표
02-2112-0330
seungyeoulyang@kr.kpmg.com

염승훈

전무이사
02-2112-0533
syecom@kr.kpmg.com

전철희

전무이사
02-2112-0355
cjun@kr.kpmg.com

박성배

전무이사
02-2112-0304
sungbaepark@kr.kpmg.com

한상현

상무이사
02-2112-0387
sanghyunhan@kr.kpmg.com

정헌

상무이사
02-2112-0334
heonjung@kr.kpmg.com

노원

상무이사
02-2112-0313
wroh@kr.kpmg.com

민성진

상무이사
02-2112-0852
smin@kr.kpmg.com

오현창

상무이사
02-2112-7478
heonchangoh@kr.kpmg.com

신문철

상무이사
02-2112-0356
moonchulshin@kr.kpmg.com

강인혜

상무이사
02-2112-0363
ikang@kr.kpmg.com

최이현

상무이사
02-2112-0505
yeehyunchoi@kr.kpmg.com

김익찬

상무이사
02-2112-0468
ikchankim@kr.kpmg.com

안창범

상무이사
02-2112-0312
cahn@kr.kpmg.com

Tax

이찬기

전무이사
02-2112-0913
changilee@kr.kpmg.com

이관범

전무이사
02-2112-0917
kwanbumlee@kr.kpmg.com

오상범

전무이사
02-2112-0721
sangbumoh@kr.kpmg.com

이성태

전무이사
02-2112-0950
seongtaelee@kr.kpmg.com

나석환

상무이사
02-2112-0953
seokhwanna@kr.kpmg.com

조원영

상무이사
02-2112-0991
wonyoungcho@kr.kpmg.com

이성욱

상무이사
02-2112-0946
sungwooklee@kr.kpmg.com

Deal Advisory

하병제

부대표
02-2112-0715
bha@kr.kpmg.com

윤창규

전무이사
02-2112-0995
changgyuyoon@kr.kpmg.com

김이동

상무이사
02-2112-0343
yidongkim@kr.kpmg.com

박성원

상무이사
02-2112-7090
sungwonpark@kr.kpmg.com

민홍길

상무이사
02-2112-6709
hmin@kr.kpmg.com

고병준

상무이사
02-2112-0742
bghoh@kr.kpmg.com

Advisory

배흥기

부대표
02-2112-0520
honggibae@kr.kpmg.com

이동석

전무이사
02-2112-7954
dongseoklee@kr.kpmg.com

윤권현

상무이사
02-2112-7495
kyoon@kr.kpmg.com

kr.kpmg.com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n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